

2차 세계대전으로 소실된 후 74년 만에 복원된 요메이덴.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시텐노지, 소실된 중세 전각 복원

창건주 쇼토쿠 태자의 부친 사당 '효행 상징'

일본 최초의 관사인 시텐노지(四天王寺)에 전화(戰火)로 소실된 전각이 다시섰다. 구랍 1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은 74년 만에 복원된 전각에 대해 보도했다.

구랍 18일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시텐노지는 요메이덴(用明殿)의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요메이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3월의 오사카 대공습으로 소실된 전각으로, 사찰의 창건주인 쇼토쿠(聖德) 태자의 부친 요메이(用明) 일왕을 기리는 사당이다. 요메이덴은 400여 년 전 시텐노지 중창기록에도 그 존재가 확인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전각이다. 소실 전에는 본전과 부속전각을 갖춘 대규모의 사당이었다. 한때 다른 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전용됐으나 근대부터 요메이덴이라는 이름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요메이 일왕을 기리는 사당이 시텐노지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텐노지의 총무부장 요시다 메이료 스님은 "쇼토쿠 태자가 16세 때 부친의 병이 낫길 바라며, 가사를 수하고 향로를 들고서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또 이때의 모습을 묘사한 효양상(孝養像)이 중세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9.5㎡의 부지에 기반축대를 포함해 높이 4.5m의 작은 규모로 복원된 요메이덴은 중세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중요한 전각중 하나다. 시텐노지 측은 "이번 요메이덴의 복원은 쇼토쿠 태자 서거 1400주년을 기념하는 관련행사의 하나"라고 발표했다.

사찰 측은 "쇼토쿠 태자 효양상의 근간이 되는 요메이덴이 복원됨에 따라, 사중대은중 하나인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미담이 포교의 일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신년예불 나타난 '귀여운 훼방꾼'

태국스님들 의식에 길고양이 나타나 애정 공세

태국 한 사찰의 신년예불에 나타난 귀여운 훼방꾼이 화제다. 한 길고양이가 사찰에 들어와 의식(儀式) 중인 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몸을 부비며 예불을 방해한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Dailymail) 등 외신은 1월 3일(현지시간) "고양이가 신년예불을 드리는 스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루앙 피 콤크릿 태차초토(Luang Pi Komkrit Taechachoto·25) 스님은 구랍 31일 자정 전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되는 신년예불 중이었다. 그런데 갈색의 길고양이가 나타나 스님 무릎에 오르면서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옆에 앉은 스승의 눈치를 보며 눈을 감은 채 고양이를 밀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해서 머리를 부비며 애교를 부렸고, 스님은 결국 쓰다듬으며 무릎을 내어줬다.



신년예불 중인 태국 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리는 길고양이.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신년예불에 참석했던 한 불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공개된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30만회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다. 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귀여운 해프닝을 조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마저 뒤덮은 '호주 산불'

호주서 가장 오래된 사원 법당은 소실돼

박정현 객원기자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5개월째 진행되면서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가운데, 이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달 초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다른 사원들의 피해 사례도 속속 확인된다. 현재 호주 산불은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토지를 태워 최악의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월 6일(현지시간) "맹렬한 산불로 인해 호주의 여러 불교 사찰이 대피했다"며 선타람(Sunntaram) 숲 사원, 산티(Santi)숲 사원, 베자살라(Vejjasala) 영성 수련소 등의 피해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길로 인해 각 사원의 모든 스님들과 종무원들, 동물들까지 대피한 상황이다.

선타람숲 사원 승려들은 2019년 마지막 날인 구랍 31일 고양이 · 공작새 등 경

지난해 9월 시작된 대형 산불
전국적으로 번지며 피해 입어
스님 · 종무원 화마에 대피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써 '귀감'

내 동물들과 함께 대피했다. 그들은 대피 후에도 화재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대피 이후인 지난 6일 현장을 방문한 봉사자 킴 맥스위니(Kim McSweeney)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선타람숲 사원과 산티숲 사원은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베자살라 영성 수련소는 다리와 건물 1동이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 부다 담마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이에 앞서 지난달 초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왓 부다 담마(Wat Buddha Dhamma)가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사원의 법당 1채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원 인근 전역에 퍼지고 있는 산불로 인해 다른 법당 역시 소실 직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사원 인근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왓 부다 담마는 저명한 아야 케마(Ayya Khema, 1923~1997)가 1978년 다룩국립공원(Dharug National Park)에 세운 사찰이다. 프라 칸티팔로(Phra Khantipalo)가 최초의 주지 스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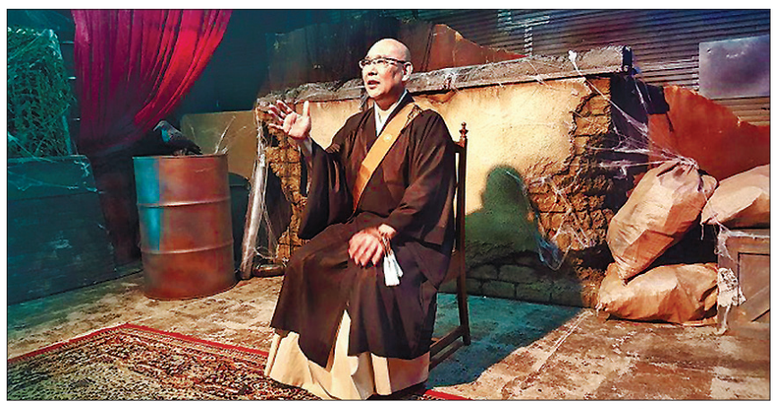
스님이 들려주는 괴담설법 뜬다

'괴담화상' 미키 다이운 스님
독특한 방법으로 佛法 알려
공연 · 출판, 대중 인기 높아

무더운 여름에 인기를 끄는 괴담,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괴담을 하는 스님이 있다. 심지어 괴담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까지 한다. 구랍 20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매그 투 뉴스'는 괴담으로 유명한 '괴담화상', 미키 다이운(47) 스님을 집중 보도했다.

다이운 스님은 교토에 소재한 유서 깊은 일련종의 고찰 '렌큐지(蓮久寺)'의 주지. 스님이 괴담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10여 년 전 어느 여름날 밤, 길을 지나고 있던 스님은 공원에 폭주족들이 입고 있는 옷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글이 쓰인 것을 보곤 무심코 말을 건 것이 괴담을 하게 된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이운 스님은 "겁도 없이 폭주족들이 모여 있는데 옷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말을 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폭주족들은 스님이 훈계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험악한 분위기로 대응했다. 스님은 "왠지 모르게 '이대로 물러서선 안 된다' 고 생각했다. 무심코 '스님이 이야기하는 괴담을 들어보겠느냐'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극장에서 괴담으로 설법하는 다이운 스님. 사진출처=매그 투 뉴스

스님은 "아무래도 절집에 있다 보니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이야기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괴담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스님은 "괴담을 들은 폭주족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무서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중 한 사람이 괴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질문했다. 그때 '괴담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괴담설법 최초의 청자들은 폭주족들"이라며 웃어보였다.

다이운 스님은 그날 밤부터 매일 괴담을 공원에서 이야기했다. '스님이 공원에서 괴담을 들려준다'는 소문이 인터넷과 뉴스 등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점차로 괴담설법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스님은 자신의 괴담설법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알고 싶어 TV 방송에서 진행하는 '괴담 그랑프리 대회'에 응모했다. 결과는 2위, 방송을 본 출판사로부터 '괴담과 설법을 합친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에 〈괴담화상의 교토괴기담〉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어 4쇄까지 출판, 속편까지 출간됐다.

한편 "사람을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할 출가자가 혹세무민을 솔선한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다이운 스님도 "괴담 그랑프리에 나온 다음날 하루 종일 불교계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괴담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며 처음 괴담설법을 들었던 폭주족들에게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그들은 "괴담을 통해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 부디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스님을 만류했다.

스님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담설법을 이어나갔다. 현재 다이운 스님은 일본 전국의 사찰뿐만 아니라 공연장을 빌려 괴담설법을 진행하고 있다. 스님의 괴담설법은 공지되는 순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예약이 힘든 법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님은 괴담설법이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로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후회와 원망을 남긴 사람들의 배경도 확실히 말하지 않고선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점이 대중이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힘닿는 대로 괴담설법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우보트레이딩

대표 이 한 용

NAVER 우보익생 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49 (마두동) 강촌프라자 201호 TEL. 031-427-1274